# 상반기 가요계 女風… 톱10중 7곡이 여성보컬 노래

## 에일리 '첫눈처럼 너에게' 1위 · 볼빨간사춘기 2, 6위

## 악동뮤지션 3위…男가수 · 보이그룹 텃세 밀어내

2017년 상반기 가요계에는 여풍(女風)이 거셌다.

남자 가수와 보이그룹의 텃세를 밀어내고 걸그룹, 여성 인디 그룹을 비롯해 여성이 부른 드라마 OST 등이 강세를 보였다.

문화일보가 음원서비스 업체 지니뮤직을 통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음원 차트 톱100을 집계해본 결과, 톱10 안에 여성 보컬의 노래 7곡이 포진했다.

가수 에일리가 부른 tvN 드라마 '도깨비'의 OST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가 1위고, 여성 인디 듀오 볼빨간사춘기의 '좋다고 말해'와 '우주를 줄게'가 각각 2, 6위였다. 이수현의 보컬이 돋보이는 남매 듀오 악동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이 3위, 걸그룹 트와이스와 레드벨벳의 노래 'KNOCK KNOCK'와 '루키'가 각각 5,7 위에 랭크됐고, 아이유의 '밤편지'가 10위를 차지했다.

톱20의 범위를 넓혀도 여성 보컬의 강세는 여전하다. 총 12곡이 여성 보컬의 곡이다.

상반기에 가수 싸이, 지드래곤, 자이언티, 빅뱅, 방탄소년단 등이 활동했던 것을 고려하면 남성 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팬덤이 약한 여성 보컬들이 '듣는 음악' 시장에서는 두각을 보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여성 보컬의 위력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도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상반기 톱10에 속한 여성 보컬의 곡은 총 5곡, 톱20 에는 9곡이 포함됐다.

특히 2016년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1위)와 '이 사랑'(다비치)에 이어 2017년 상반기에도 여성 가수들이 1, 2위를 모두 차지했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

홍세희 지니사업본부 본부장은 "해가 갈수록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는 여성 보컬의 노래가 늘고 있다. 이는 여성 가수나 그룹, 밴드 등의 역량이 크게 성장했다는 증거라 볼 수 있다"며 "또한 남성 가수나 보이그룹을 좇는 여성 팬덤 못지 않게 여성 가수나 걸그룹을 지지하는 남성 팬덤 시장 역시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드라마 OST, 인디 그룹의 약진이 돋보인다.

'도깨비' OST는 상반기 톱100 안에 총 10곡을 올렸다. 크러쉬가 부른 '뷰티풀'(4위), 찬열&펀치의 '스타이 위드 미'(8위), 에디킴의 '이쁘다니까'(17위) 등이 톱20위에 들었고, MBC '군주-가면의 주인'의 수록곡인 '처음부터 너와 나'(46위), tvN '또 오해영'의 '너였다면'(49위) 등이 눈에 띄는 OST였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KBS 2TV '태양의 후예'와 tvN '응답하라 1988'의 OST 각각 7곡이 상위권에 랭크되는 등 드라마 OST 18곡이 톱100 차트를 장악했다.

눈에 띄는 인디 그룹은 볼빨간사춘기와 신현희와김루트다.

볼빨간사춘기는 상반기 차트 2, 6, 11위 외에도 톱50 안에 총 6곡을 올렸다. 신현희와 김루트가 부른 '오빠야' 역시 25위에 오르며 선전했다.

홍 본부장은 "아이돌 문화가 가요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음원 순위를 살펴보면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이 고르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가요계와 이를 즐기는 가요팬들이 능동적으로 음악을 선택하면서 쏠림 현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새신랑부터 여름 득량도까지 역대급 '삼시세끼'가 온다

나영석 PD가 자신의 대표 예능 중 하나인 '삼시세끼'로 돌아온다. 올해만 들어 7개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하며 남다른 '열일' 행보를 보이고 있는 나영석 PD.

오는 7월 셋째 주 득량도에서 2박 3일 촬영을 진행할 '삼시세끼-어촌편4'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담기게 될까.

### ▲ '새신랑' 에릭의 러브스토리

에릭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 교회에서 5년 동안 열애를 이어온 나혜미와 행복한 웨딩마치를 울렸다. 이날 두 사람의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교회 앞 촬영에서 들러리로 참석한 신화 멤버들의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았던 바. 신화가 20년을 함께한 장수 아이돌인 만큼 리더의 첫 결혼식에 많은 축하가 쏟아졌다.

이에 '새신랑' 에릭의 '삼시세끼-어촌편4' 출연이 더욱 시선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에릭은 나혜미와의 열애를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 '삼시세끼'가 하루 세 끼를 지어먹으며 소소한 대화를 이어가는 프로그램인 만큼, 아주 작게나마라도 에릭과 나혜미의 러브스토리를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 ▲이 멤버 리 멤버(ft. 게스트)

이서진, 에릭, 윤균상이 다시 모였다는 점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지난 '삼시세끼-어촌편3'에도 출연한 세 사람은 막강 케미를 발휘하며 '불새커플', '예세프', 'ㄱㅠㅇ인턴' 등의 애칭까지 얻었다. 이들의 첫 만남이 그 정도였으니 한층 친근해질 두 번째 만남에 팬들의 환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윤균상의 애묘였던 쿵이와 몽이의 합류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말이다.

이들을 찾을 게스트들에게도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삼시세끼' 시리즈는 고정 멤버에 매번 달라지는 게스트를 통해 변주를 시도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이번 '삼시세끼-어촌편4'에서 이서진, 에릭, 윤균상을 찾을 이는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케미를 발휘할 것인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 '웰컴 득량도', 아름다운 여름의 풍경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뀐 득량도의 자연환경도 눈길을 끈다. '삼시세끼'의 다양한 매력 중에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통해 도시에서의 지친 삶을 위로해주는 '힐링'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 이에 매번 '삼시세끼'의 촬영지로 선택된 곳들이 유명 관광지로 부각되며 많은 사랑을 받곤 했다.

무엇보다 '삼시세끼-어촌편4'는 7월~9월의 여름에 촬영되는 만큼, 지난 '삼시세끼-어촌편3'가 담아낸 겨울의 모습과 확연히 다를 예정. 이에 이서진, 에릭, 윤균상이 '여름의 섬' 득량도에서 '서지니호'를 타며 즐길 또 다른 힐링 라이프에도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삼시세끼-어촌편4'는 '알쓸신잡' 후속으로 오는 8월 중 첫 방송된다.

# "또 아이돌 오디션?" '99매치', KBS의 이유있는 도전

지 못했던 KBS가 명예회복을 노린 오디션에 있어서는 유독 빛을 보다.

KBS가 준비 중인 새 오디션 프로그램 '더 파이널 99매치(가제)'은 아이돌뿐 아니라 데뷔했던 모든 장르의 가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오는 10월 방송을 목표로 한다.

현재 '뮤직뱅크' 책임 프로듀서인 한경천 CP를 비롯해 '해피투게더3' 박지영 PD와 '인간의 조건' 원승연 PD, '노래싸움 - 승부' 손수희 PD가 제작팀을 꾸렸다. 실패해도 괜찮다. 또 도전하라. 젊은이여, 희망을 놓지 말아라'는 슬로건 아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실패를 경험한 아이돌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자는 외도에서 제작됐다.

사실 KBS는 SBS 'K팝스타' MBC '위대한 탄생' 등 타 방송국에 비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서바이벌 스타 오디션', '톱밴드', '청춘FC-헝그리 일레븐', '내 생애 마지막 오디션' 등 아이돌에 국한하지 않고 범위를 넓히는 시도를 했지만 기획 의도에 비해 반응은 미미했다.

그럼에도 KBS가 다시 오디션에 나선 배경에는 적잖은 확신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상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절치부심'이라 부를만한 각오가 원동력이다. KBS는 신인 뿐 만 아니라 이미 데뷔한 경험이 있거나 한 번 실패해 본 청춘들에게 기회를 주는 오디션을 시도해 왔는데, 이번에도 이 같은 기획의도를 이어간다. 대신 '아이돌' 코드를 접목해 대중성을 강화하고 무려 70억 원 제자비를 투입해 스케일을 키운다.

한경천 CP는 "공영방송 KBS가 지닌 역할과 주시청층을 고려해 일반적인 아이돌 오디션과는 다른, 이미 한 번의 실패 경험이 있지만 다시 한 번 기회를 가져보자는 취지로 접근하면 어떨까 싶었다"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특히 "우리가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공을 담보할 수도 없다. 다만 치열한 가요계에서 충분한 기회를 누리지 못했고 단 한 번의 실패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들과 함께 도전해 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CP는 지난 2015년 방송된 '청춘FC'가 이번 기획의 밑바탕이 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청춘FC'는 축구선수로서의 꿈을 접기엔 너무 젊은, 하지만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한 맺힌 청춘들의 마지막 도전기를 그린 프로그램이다.

아이돌 오디션 포화 상태 속에 '왜 또 아이돌인가' 하는 궁금증에는 "우승팀 선발 형태를 그룹으로 계획 중이긴 하지만, 꼭 아이돌 출신만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수로서 한 번 데뷔를 했던 인물이라면 장르적으로 제한은 없다. '아이돌'보다는 '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 또 다시 오디션 도전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끌어 않은 'K팝스타'나 높은 화제성을 모은 '프로듀스101' 등을 봤을 때 오디션의 가능성을 재확인 했고, 우리 입장에서 그에 대한 부러움이 없지 않다. 앞서 선보인 오디션은 제작비를 비롯해 제작 여건상 기획의도를 살리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은데 이번엔 다를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KBS를 대표할만한 신규 오디션의 제작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남자아이돌 250명, 여자아이돌 250명을 모아 각 9명씩 팀을 꾸릴 계획이지만 아직 논의 단계로 변동 가능성이 있다. 혼성 그룹이 될 여지도 있다. 제목 또한 가제로, 시청자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 CP는 "일반적인 문자 투표 외에 좀 더 긴밀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전해, 오디션에서 가장 중요한 시청자 참여 방식에 있어서도 차별화를 기대케 했다.

##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7월 5일 수요일 (음력 5월 12일)

★ 혜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

▶쥐띠 36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48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60년생 문서 계약운이 있다.72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84년생 꿈을 접지마라.

▶소띠 37년생 외출을 삼가라.49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61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3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85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호랑이띠 38년생 만사가 해결된다.50년생 산행을 삼가라.62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74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86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토끼띠 39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51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63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75년생 기다림을 알아라.87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용띠 40년생 혼란스러워도 점차 맑아진다.52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64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76년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88년생 효도하는 마음을 잃지마라.

▶뱀띠 41년생 까치가 집 주위를 맴돈다.53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65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77년생 순풍에 돛을 높이 올린다.89년생 욕심을 버려야 뜻을 이룬다.

▶말띠 42년생 여유있게 행동 54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66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78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90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양띠 43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55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67년생 이사에 신중하라.79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91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원숭이띠 32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44년생 믿음아래 덕을 받는다.56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68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80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닭띠 33년생 출입을 삼가라.45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57년생 근심거리가 생기더라도 집착은 삼가라.69년생 내 자신을 알고 맘을 고요히 하라.81년생 오로지 목표를 향해 전진하라.

▶개띠 34년생 마음을 고요히 하라.46년생 뜻밖의 재물운이 있다.58년생 자신의 영역이 커짐을 느낀다.70년생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을 쥐가 듣는다.82년생 정성을 다하면 수확은 분명 있다.

▶돼지띠 35년생 미련을 버려라.47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59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71년생 무리수는 금물이다.83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